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4 Issue | Vol. 9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2025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 6% 아래로 하락할 수도 —page 1-2
-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 12월 31일 발효 —page 2-3
- 투자자에게 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다 — 재무부 —page 3-4
- 외국인을 위한 98년 토지 임대 법안, 필리핀 투자 촉진 기대 —page 4-5
- PEZA, DOLE, 비자 처리 간소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정 체결 —page 5-6
- 건설업, 10월 주택 건설 급증으로 성장 기록 —page 6

2025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 6% 아래로 하락할 수도

December 26,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국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무역 적자 확대 전망으로 인해 2025년에 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밝혔습니다.

BofA 증권의 필리핀 담당 경제학자 조조 곤잘레스는 2025년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정한 내년도 성장 목표치인 6~8%를 간신히 밀도는 수준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올해 3분기에 예상보다 낮은 5.2%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5분기 중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올해 9개월 동안 GDP 성장률은 평균 5.8%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의 6%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달 초,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국내 및 글로벌 불확실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 성장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A general view of the rush-hour traffic at a market in Manila, Philippines, Dec. 20, 2024. — REUTERS

"고 private 소비와 투자에서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의 성장은 완만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적자의 확대가 예상됩니다."라고 조조 곤잘레스는 BusinessWorld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3분기 동안 정부 지출의 성장률은 이전 분기의 11.9%에서 5%로 둔화되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10월 무역 적자는 58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한편, BofA는 내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3%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4%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5년 물가상승률이 평균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2%를 기록했습니다.

"약세 폐소는 이 전망에 대한 위험 요소로 남아 있지만, 유가 하락이 약세 통화의 영향을 상쇄하는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곤잘레스는 말했습니다.

BofA는 내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폐소 환율이 P61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2025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2025년 말 환율 전망치는 P61입니다."라고 곤잘레스는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필리핀 폐소는 달러당 P59라는 사상 최저치를 세 번 기록했습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이전에 폐소 환율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SP는 최근 몇 달 동안 강한 달러로 인해 소규모 개입을 해야 했으며, 이는 도널드 J.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Cont. page 2]

2025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 6% 아래로 하락할 수도

[Cont. from page 1]

한편, BofA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내년에 최대 75bp(기준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금리를 2025년 말까지 5%로 낮출 것입니다."라고 곤잘레스는 밝혔습니다.

지난주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올해 마지막 정책 검토에서 차입 비용을 25bp 인하하여 기준 금리를 5.75%로 조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8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총 75bp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레올로나 BSP 총재는 이전에 내년에 10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상당 위험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금리를 "작은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연준(Fed) 금리가 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월 한 차례, 2025년 상반기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곤잘레스는 말했습니다.

연준은 12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의 조치였지만, 2025년에는 더 적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년에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완화된 물가 상승률 지표는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일부 우려를 완화했지만, 시장은 2025년 약 35bp의 금리 인하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2025년 관세, 규제 완화, 세금 정책 등에서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2/26/643454/phl-growth-may-fall-below-6-in-25/](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2/26/643454/phl-growth-may-fall-below-6-in-25/)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 12월 31일 발효

December 24, 2024 | Malou Talosig-Bartolome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2024년 마지막 날, 필리핀과 한국은 공식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며, 양국 간 75년의 견고한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2024년 12월 31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필리핀 FTA의 발효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라고 마닐라 주재 한국 대사 이상화는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필리핀 제품의 94.8%에 대해 세금을 철폐합니다. 필리핀은 한국 제품의 96.5%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필리핀 제품 중에서는 바나나, 가공된 파인애플, 기타 과일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제품 측면에서는 많은 자동차 부품과 유닛들이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필리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사관은 이번 FTA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의 첨단 제조업 분야, 특히 자동차, 정보기술, 전자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인하 외에도 FTA는 스마트 농업, 영화 제작 및 전기차와 같은 신흥 분야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통신 및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필리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FTA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 page 3]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 12월 31일 발효

[Cont. from page 2]

필리핀과 한국은 2019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안(ASEAN) 정상 회담의 부대 행사로 서명되었으며,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지난해 9월에 이 협정을 비준했으며, 두 달 후 한국 국회도 이를 비준했습니다.

"FTA는 양국에 중요한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산업, 농업, 인프라,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더 깊은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이 협정은 경제 성장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한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FTA가 향후 헬스케어, 탄소 감축, 혁신 기술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과 같은 새로운 협력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24/phl-sokor-fta-takes-effect-december-31/>

투자자에게 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다 — 재무부

December 25, 2024 | By Manila Standard Business

2024년에 시행된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CREATE MORE 법)**은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필리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및 새해 선물 중 하나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공포된 공화국법 제12066호인 CREATE MORE 법은 필리핀을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글로벌 경쟁력 있고 투자 친화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변모시켜 비즈니스에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CREATE MORE는 현재와 미래의 투자자들, 그리고 올해 필리핀 전체 국민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라고 재무장관 랄프 렉토는 말했습니다.

"2025년의 경제 전망은 외국인 투자 약속이 실현되고, 이 법 덕분에 국내 기업들이 더욱 강해지면서 밝아졌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윈-윈(win-win) 상황입니다.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특히 CREATE MORE의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필리핀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전략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투자에 대해 경쟁력 있고 관대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사업체(RBE)는 상업 운영 시작부터 5%의 특별법인세(SCIT) 또는 향상된 공제제도(EDR)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집니다.

SCIT와 EDR 인센티브는 처음에는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최대 17년 또는 2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프로젝트는 추가로 5년 또는 10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CREATE MORE는 등록된 수출기업(REE)과 150억 페소 이상 투자 자본을 보유하고 수입 대체 또는 수출 판매를 하는 고부가가치 국내 시장 기업(DME)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에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 기업들입니다.

CREATE MORE는 또한 EDR을 확장하여 RBE가 법인세(CIT)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제조업 분야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 박람회 및 관광 재투자자 관련된 비용에 대해 2034년까지 50%의 추가 공제가 제공됩니다.

[Cont. page 4]

투자자에게 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다 — 재무부

[Cont. from page 3]

이 법은 순손실 이월(NOLCO)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 연도에서 “프로젝트의 소득세 면세 기간(ITH) 마지막 연도”로 계산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정부, 공기업(GOCC), 기술교육훈련청(TESDA), 국립대학교 및 대학(SUCs), 교육부(DepEd) 또는 고등교육위원회(CHED) 인증 학교에 자본 장비, 원자재, 예비 부품 또는 액세서리를 기부할 경우 세금 및 세금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CREATE MORE는 ITH 또는 EDR 기간 동안 모든 지방세, 세금 및 수수료를 대신하여, RBE 로컬세(RBELT)를 총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 개혁은 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운영되는 RBE들이 세금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연한 근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합니다.

수출 지향적 기업의 국내 구매는 제로세율이 적용되며, 수입은 부가가치세(VAT)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부가가치세 인센티브의 조건을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에서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요구 사항으로 변경하여, 청소, 경비, 재무 상담, 마케팅 및 행정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장합니다.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40079/create-more-biggest-christmas-gift-to-investors-dof.html>

외국인을 위한 99년 토지 임대 법안, 필리핀 투자 촉진 기대

December 26, 2024 | John Victor D. Ordoñez | BusinessWorl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last week approved separate bills allowing foreigners to lease land up to 99 years from the current 75 years. — PHILIPPINE STAR/NOEL PABALATE

외국인이 체결한 토지 임대 계약의 최대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려는 법안이 필리핀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긴 기간의 임대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을 때 필리핀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 선임 연구원인 존 파올로 R. 리베라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산업단지, 경제구역, 관광 관련 프로젝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기업들이 더 긴 임대 기간이 보장될 수 있다면 투자를 더 많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하원과 상원은 외국인이 75년에서 99년까지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계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관광 관련 외국인 민간 토지 임대는 투자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허용됩니다. 이 금액의 70%는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우선 법안 중 하나로, 정부는 2025년 6월 이전에 이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아직 양원 합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버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베라 씨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긴 임대 기간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동안 토지가 묶여 있는 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특히 원주민 권리와 농업적 이익이 중요한 지역에서 토지 사용 및 배분과 관련된 지역 사회와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31년 된 투자자 임대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민간 토지를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5년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Cont. page 5]

외국인을 위한 99년 토지 임대 법안, 필리핀 투자 촉진 기대

[Cont. from page 4]

"99년 임대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제자유재단(Calixto V. Chikiamco) 회장이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 법안에 있는 조항을 언급했는데,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을 토지등록청(LRA)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고 하며, 이는 임대 계약의 "보안성과 은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농업, 농림업 및 생태 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은 산업단지, 공장, 조립 및 가공 공장, 관광지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긴 임대 기간을 허용합니다.

하원과 상원 법안 사본에 따르면, 하위 임대 계약은 반드시 LRA의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불법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100만 페소에서 1000만 페소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만이 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하원에서는 징역형을 삭제했습니다.

상원 법안은 또한 법인, 협회 또는 파트너십이 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의 사장, 관리자, 이사, 신탁 관리자 또는 기타 임원이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장기 임대 계약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투자진흥청(BOI) 또는 관련 투자 촉진 기관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3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임대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테네오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A. 란조나는 정부가 외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배하려는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약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이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에서 말했습니다.

리베라 씨는 필리핀은 여전히 일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임대 계약 기간을 투자 환경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필리핀은 다른 투자 환경 측면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2/26/643453/bill-on-99-year-land-lease-for-foreigners-seen-to-boost-phl-investments/](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2/26/643453/bill-on-99-year-land-lease-for-foreigners-seen-to-boost-phl-investments/)

PEZA, DOLE, 비자 처리 간소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정 체결

December 26, 2024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과 노동고용부(DOLE)는 PEZA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투자 유치 기관은 이 협정이 PEZA 비자 신청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PEZA 테레소 팡가 국장과 노동부 비엔베니다 로게스마 장관이 12월 16일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외국인들이 PEZA 경제구역 내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Alien Employment Permit(AEP)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단순화된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팡가 국장은 이 협정이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세스와 정책을 일치시킴으로써 더 빠르고 투명하며 서비스 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필리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OLE와의 이 파트너십은 효율성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반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PEZA는 필리핀을 주요 투자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Cont. page 6]



PEZA, DOLE, 비자 처리 간소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정 체결

[Cont. from page 5]

로게스마 노동부 장관은 PEZA와 관련된 개발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협정이 PEZA 경제구역 내에서 고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두 기관의 운영 필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협정은 AEP의 수정된 시행 지침에 명시된 후배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 지침은 이번 달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노동부의 임무의 일환으로, 이 기관은 외국인의 고용과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협정의 서명은 필리핀 노동 및 고용 계획 2023–2028의 목표를 보완하며, 데이터 통합을 강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하며, 노동 시장 프로그램이 투자자, 입주자 및 필리핀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라고 팡가 국장은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2/26/2409789/peza-dole-sign-data-sharing-agreement-streamline-visa-processing>

건설업, 10월 주택 건설 급증으로 성장 기록

December 26, 2024 | By Manila Bulletin



필리핀의 건설 산업은 10월에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와 비주거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덕분에 성장하였으며, 평균 건설 비용은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4년 10월 건설 부문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고했으며, 건설 프로젝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3,848건에 달했습니다.

PSA에 따르면,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은 주거용 건축물의 급증으로, 10월에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 중 9,003건(전체의 65.0%)이 주거용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단독 주택이 76.6%를 차지했습니다.

비주거용 건설도 이 부문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체 프로젝트 중 20.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상업용 건축물이 68.9%를 차지했습니다.

건설 가치 면에서는 10월에 건설 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443억 9천만 페소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 전체 건설 가치의 49.0%를 차지했으며, 이는 건설 가치가 전년 대비 35.8% 증가한 결과입니다.

10월의 건설 총 바닥 면적은 전년 대비 40.9% 증가한 387만 제곱미터로 확장되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56.3%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대비 60.4%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설 활동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당 건설 평균 비용은 전년 대비 9.7% 감소하여 제곱미터당 10,596.33페소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제곱미터당 평균 11,448.35페소로 가장 높은 평균 비용을 기록했으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곱미터당 9,941.63페소였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12/26/ph-sees-4-rise-in-construction-project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